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1호 【루계 제25850호】 주체106(2017)년 12월 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오늘의 민족사적대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평안북도, 함경북도군민련환대회 진행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특기할 대경사인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성공소식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희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누리에 존엄 떨치는 주체조선의 공민된 끝없는 영광과 긍지를 안겨주고 있다.

행성을 뒤흔든 오늘의 자랑찬 쾌승은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자, 제일배짱가이시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만로고가 안아온 애국헌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평안북도, 함경북도군민련환대회가 6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영웅조선의 위상을 만방에 과시한 기세드높이 이 땅우에 기어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야말 혁명적열의를 안고 모여온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군중들로 차넘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의 구호들이 대회장들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를 비롯한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가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리성근동지, 조선인민군 장령 리금철동지,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백학룡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당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온 나라를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초인간적인 헌신과 로고속에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9월 3일의 장쾌한 수소탄폭음에 이어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케트가 탄생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의 핵공갈과 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통쾌한 승리는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신화로 조국청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의 맑고 푸른 하늘을 흐려놓을수 없게 되였으며 우리 후대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뼈아픈 고생과 시련을 다시는 겪지 않고 영원히 사회주의만복을 누릴수 있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병진로선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점령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연설자들은 인민군장병들과 도안의 전체 인민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수풍발전소, 태천발전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전력,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것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발전설비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화력탄보장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정보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고 당에서 품들여 마련해준 축산, 버섯기지들과 남새온실들에서 생산을 근기있게 내밀어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공업부문에서 우리의 원료, 자재에 의한 생산을 활성화하는것과 함께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날카롭게 주시하며 만약 놈들이 끝끝내 침략전쟁의 불집을 일으킨다면 원쑤의 무리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혁명의 년대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충직하게 받들어온 항일의 7련대원들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세대들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안녕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만리마시대의 격전장들을 청년판으로 들끓게 하여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위원장 리히용동지가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화동지, 조선인민군 군관 안성도동지,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송태철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의 장쾌한 폭음으로 당의 국가핵무력건설의 전략적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든 우리의 영용한 국방과학부문 전투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과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오늘의 값비싼 승리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고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조직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드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전력, 금속, 화학, 석탄, 기계제작공업부문과 경공업, 농업, 수산을 비롯한 모든 경제부문들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설비, 자재의 주체화비중을 높여나감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비약적인 전진속도에 발맞추어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전구마다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민족적대사변들로 충만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백두산훈련열풍의 불도가니속에서 일당백혁명강군의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 적들이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권위를 해치려고 조금이라도 움찔한다면 단호하고도 강력한 보복의 불벼락을 들씌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군민련환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적승리를 끊임없이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자력갱생으로 승리떨쳐온 불멸의 년대기

전승의 력사에 빛나는 위대한 혁명정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오늘의 행군길에서 우리 인민이 언제나 간직하고 살아야 할 혁명정신이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적승리를 안아오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이다.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줄기찬 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무궁무진한 창조의 힘, 그 원천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못 잊을 추억이 파도쳐온다.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언제나 승승장구하여온 우리 혁명의 로정은 얼마나 긍지높고 영광스러운것인가.

가렬처절하였던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 그 빛나는 승리의 력사에 아로새겨진것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이다.

참으로 준엄한 전쟁이였다. 창건된지 2년도 못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고 침략의 불을 지른 날강도 미제는 세계의 《최강》을 떠벌이는 제국주의침략의 괴수였다. 군사장비에서나 경제적잠재력에 있어서 대비조차 되지 않는 이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지은것은 결코 력량상차이가 아니였다.

인민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불씨를 심어주시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하늘가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구현한 전시경제정책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켜 나라의 모든 물질경제적잠재력을 전쟁에 총동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미제가 침략전쟁을 일으킨 다음날인 6월 2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는 방송연설이 전파를 타고 온 나라에 울려퍼지였다.

전체 조선인민에게 하신 력사적인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연설에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모든 힘을 우리 인민군대와 전선을 원조하는데 돌리라!

모든 힘을 적들을 격멸소탕하는데 돌리라!

우리 수령님의 불같은 애국의 호소는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해방후 자기들의 손으로 일떠세운 조국,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전체 인민들이 산악같이 일떠서지 않았던가.

전쟁은 국력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다. 불과 불이 맞붙고 철과 철이 부딪치는 생사판가리의 전쟁에서는 한 나라의 힘과 잠재력이 낱낱이 검증된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친 조선의 힘과 잠재력,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무한한 충정과 필승의 신념이였다.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자기 힘을 믿고 떨쳐일어난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였다.

《후방도 전선이다!》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우리 인민이 벌린 자랑스러운 전시생산투쟁을 생각할 때면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영웅적투쟁정신을 발휘한 군자리로동계급의 모습이 제일먼저 떠오른다.

군자혁명사적지!

가렬한 전화의 나날 침략자들의 정수리에 불소나기를 쏟아붓는 무기와 탄약들을 펑펑 만들어내던 자위의 병기고, 그 나날의 숨결을 오늘도 고이 간직하고있는 혁명사적지를 돌아보느라면 전승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어려오고 당과 수령을 받들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 군자리로동계급의 고결한 혁명정신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우리 수령님 어찌하여 석수가 뚝뚝 떨어지고 화약내와 습기에 젖은 험한 갱도를 찾으시였던가.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우리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패배주의자들에게 이 갱도를 보여주라고, 우리가 그 어떤 대국의 위성국으로 무기를 얻어다 전쟁을 치르고있는가 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이 갱도에 들어서면 정신이 번쩍 들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교시가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침략자들과 싸워도 우리의 무기로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해도 우리의 힘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군자리로동계급에게 자력자강의 심원한 뜻을 심어주시였다.

전선에 무기와 탄약을 많이 보내주는가 보내주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이 공장 종업원들이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은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라고 간곡하게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돌이켜진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바쁜 시간을 보내시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자리에 있는 군수공장의 한 수리공이 못쓰게 된 베아링을 재생리용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공장의 전반적인 설비리용률을 훨씬 높이게 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공장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베아링재생법을 연구함으로써 병기생산에서 절리고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베아링의 재생은 곧 설비의 재생을 의미한다고 하시며 지금 우리 나라에서 베아링을 자체로 만들지 못하고있는 형편에서 베아링재생법을 연구완성한것은 하나의 발명과 같다고, 이것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로동계급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영웅적인 투쟁정신의 표현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정신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였으면 한 수리공의 진지한 노력을 그리도 높이 평가하시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 로동계급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고,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설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높은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애로와 난관앞에 굴하지 않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는 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습니다. …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전쟁승리를 안아오는 힘의 원천이 있었다.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저절로 생겨난것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포연속을 뚫고 여러차례나 군자리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의 심장속에 불멸의 지침들을 안겨주시였기때문이였다.

동무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전선에서 싸우는 인민군대가 피를 적게 흘리게 된다고, 동무들이 적극 노력하여 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 전선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신 간곡한 당부, 병기공업을 확대발전시켜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할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켜낼수 없다고, 우리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병기공업을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다고 그토록 강조하신 절절한 가르치심, 적들은 동무들이 만든 기관단총을 보기만 하여도 손을 든다고, 미제침략자들이 보기만 하여도 벌벌 떠는 기관단총으로 우리 인민군군인들을 다 무장시키면 더 많은 적을 잡을수 있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숭엄한 영상을 언제나 심장속에 간직하고 사는 군자리로동계급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야말로 군자리로동계급이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게 한 원동력이였다.

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한 군자리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들은 기대앞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정전이 되면 해불을 추켜들고 선반의 피대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부속품가공을 계속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이 공장가까이로 쳐들어오고있던 위급한 순간에도 결사대를 뭇고 손으로 선반의 피대를 돌리면서 기관단총을 만들어낸 자력갱생의 투사들, 자재가 떨어지면 하루밤사이에 눈보라를 헤치며 100리길을 걸어가 등짐으로 날라다 생산을 보장하고 폭약이 떨어지면 시한탄과 불발탄을 해체하여 부족되는 폭약을 보충하며 병기생산을 멈추지 않은 불사신들이 바로 군자리로동계급이였다. 5분이 멀다하게 진행하는 시험사격으로 고막이 터졌지만 총을 놓지 않고 사격을 계속하였으며 갱도안에 꽉 찬 화약가스로 하여 사격수가 앞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자 신발을 벗어 불뭉치를 만들어들고 목표판앞에 서서 《나를 향해 쏘라!》고 웨치던 그날의 전시생산자들의 투쟁내용들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전쟁의 포성이 멎어 세월이 멀리도 흐른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성천군의 어느 한 고개마루에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윽토록 산고개를 추억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고개를 지날 때면 군수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시기 고생스럽단 말 한마디없이 기관단총과 박격포를 만들어내느라 고생하던 우리 로동계급이 생각나오, 그들의 불굴의 기상이 나의 가슴에 승리의 신심을 더욱 두터이 해주었던것이요라고 회고하시였다.

이렇듯 우리 조국의 불멸할 전승사에는 군자리로동계급의 영웅적위훈이 금문자마냥 아로새겨져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군자리혁명정신을 창조한 영웅적로동계급을 우리 수령님께서 키워주시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펴올리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전시증산투쟁의 불길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과 농촌들, 우리 인민들이 지켜선 그 어느곳에서나 세차게 타올랐다.

못 잊을 화폭들이 어려온다. 전쟁의 포화속을 헤치시며 락원의 로동계급을 찾아오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뜨겁게 울린다.

락원기계제작소(당시) 주철직장 당세포회의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명 당원들의 모습을 미더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얼마나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던가.

우리 로동계급은 난관과 시련앞에서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가진 로동계급이며 이러한 로동계급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후복구건설도 훌륭히 할수 있다고.

우리 수령님의 믿음은 기적을 낳았다. 하나밖에 없는 용선로가 숨을 멈추고 폭격에 변전소가 파괴되였을 때 락원의 로동계급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맹세를 지켜 전시생산을 멈추지 않고 맨손으로 수류탄을 만들어 전선에 보내였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민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라고 하시며 평원군 원화리의 농민들을 도와 몸소 씨뿌리기를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우리 농민들은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밭머리에 대피호를 파고 적기의 폭격과 함포사격이 쉬임없이 감행되는 조건에서도 낮에 밤을 이어 영농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수확운동, 녀성보잡이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해마다 농업생산을 늘이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 정녕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자기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닌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빛나는 력사의 기적이였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지키고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은 위대한 계승속에 빛난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은 1950년대에 발휘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이어나가는 드세찬 공격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승리떨쳐온 전세대들의 위훈과 전통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원히 빛내여갈 천만의 맹세 강산을 진감한다.

천만군민이여,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쳐 나가자!

본사기자 림정호

희천발전소건설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자기 힘이 제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력사를 쥐여짜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형산소분리기생산정형을 알아보시려 락원기계공장(당시)을 찾으시였던 수십년전의 어느날이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게 된 감격과 기쁨에 앞서 자책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완성품을 내놓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는데 완성단계면 다된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형산소분리기설비들가운데서 공장에서 자체로 만드는것은 모두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몇개의 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장에서 자체로 만든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어느 한 제품앞에 다가서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한 일군이 일부 나라 사람들이 특허라고 하면서 신비성을 부여하고있는 소재인데 산소분리기의 심장과 같은 설비에 쓰인다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그 설비를 만드는 방법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제작이 비교적 헐한 반면에 막대한 자재가 들고 생산성도 낮은 낡은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최신과학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인 방법인데 그것을 만드는 나라들에서 제작공정을 비밀에 붙이고있기때문에 모든것을 자체로 만들어야만 하였다. 물론 힘은 들지만 공장에서는 두번째 방법을 택하였다.

대단하다고, 정말 보기만 해도 정밀하다고, 이런걸 모두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냈는가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나오는가 보게 어서 기계를 돌리라고 하시였다.

이어 제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기대앞에 가까이 다가서시여 제품이 나오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다시금 기대뒤로 가시여 허리를 굽히시고 동작상태를 살펴보신 위대한 장군님.

정말 동무들을 믿은 보람이 있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소분리기를 분해도 해보지 못한 동무들이 이렇게 정밀한 기계를 만들었다니 참 대단하다고 치하하시였다.

산소분리기생산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이 마음쓰시며 공장로동계급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정녕 그이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곳 로동계급이 막아서는 수많은 난관을 자기의 힘으로 뚫고헤쳐올수 있었겠는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이것이 대형산소분리기의 생산과정에 락원의 로동계급이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한 진리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수류탄과 양수기를 만들어낸것처럼 락원로동계급은 드디여 대형산소분리기를 성과적으로 만들어냈으며 어머니 우리 당에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올릴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을 다그치는 천만군민으로 하여금 자력자강의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백영미

— 자력자강의 한길로 이끄시던 나날에 —

깊이 새겨주신 철리

주체79(1990)년 11월말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새로 건설하여야 할 어느 한 세멘트공장건설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당시 그 공장은 중요대상건설이 긴장하게 제기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 설비를 들여다가 건설하는것으로 안을 세우고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마가을 찬바람이 부는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에 나가시였다.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당 일군들에게 대상설비가 다 특대형설비이고 처음 만들어보는것이기때문에 이러저러한 애로와 난관이 있을수 있지만 신비할것은 하나도 없으며 기계공장들에서는 다 만들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깊어지는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먹고 달라붙기만 하면 세멘트공장같은것은 얼마든지 자체로 건설할수 있다고,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자체로 못해낼것이 없다고 간곡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이날 일군들은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설비와 기술에 의존하려고 했던 자신들을 심각히 돌이켜보며 자력갱생이야말로 생명이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값높은 평가

주체100(2011)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공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포유리병공장과 남포시를 비롯한 련관단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불굴의 신념을 안고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현대적인 유리병생산공정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였다.

격정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돌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포유리병공장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나라의 유리병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돌격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에게 이 공장을 건설하는데 다른 나라의것이 들어간것은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공장의 설비들은 모두 자체로 만든것이라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을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를 다시금 절감한 일군들의 가슴은 세찬 흥분으로 높뛰였다.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며

주체105(2016)년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이 리용할 여러가지 형태의 가방들을 일일이 보시면서 성별과 년령심리적, 신체적특성에 맞게 손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린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완전히 국산화된 생산공정, 당에서 바라는 우리 식 생산공정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부하로 돌아가고있는 공장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 자력갱생의 동음소리는 머지않아 세상만복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혁명승리의 동음소리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원쑤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를 내리는 징벌의 동음소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릴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김일권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시는 길에서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승리떨치는 격동의 이 시대에 사회주의협동벌에 기계화의 동음이 더 높이 울리고있다.

우리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시려, 사회주의전야에 농업근로자들의 기쁨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차넘치게 하시려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손길따라 사회주의농촌에 더욱 장쾌하게 메아리치는 기계화의 동음은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기계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벌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성트락또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불멸의 화폭을 경건히 우러렀다.

마가을의 쌀쌀한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금성트락또르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난 11월의 그날 그이께서는 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 세심한 보살핌속에 지난날 호미와 낫이나 벼리던 자그마한 소농기구공장으로부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굴지의 트락또르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된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금성트락또르공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34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10차례나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시면서 현지지도차수만 놓고보아도 주체적인 트락또르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주체47(1958)년 11월 어느날 이 공장 로동계급이 만든 《천리마》호트락또르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새로 만든 《천리마－2000》호트락또르앞에 서시여 공장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우러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성트락또르공장이 지난 기간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결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절절히 울리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천만년세월이 흐른대도 영원히 잊을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숭엄히 어려왔다.

전후 이 땅우에 전설의 천리마를 불러오시여 세기적기적과 변혁의 력사를 장쾌히 엮으시던 그 나날 이 공장을 찾으시고 농촌에 트락또르를 많이 만들어보내주면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고 하시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이 마침내 자력으로 만든 첫 트락또르를 몰고 평양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짓부셔버리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트락또르를 만들어낸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농민들이 기계를 실컷 써보았다는 말을 들었으면 소원이 풀리겠다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새기신 헌신의 자욱은 정녕 그 얼마이던가.

우리 농민들이 쌀을 헐하게 생산하여야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지 힘들게 생산하면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치 않고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산작업을 기계화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때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때로는 당중앙위원회 청사마당에서 새로 만든 농기계도 친히 보아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다.

모내는기계에 깃든 사연은 또 얼마나 우리 가슴 울리는것인가.

우리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 친히 모내는기계를 만들도록 하시고 어느해인가는 농장벌을 찾으시고 날이 어두워지도록 완성단계에 이른 모내는기계의 시운전을 보아주신분, 날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그만 돌아가실것을 간절히 아뢰이는 일군들에게 농민들을 손로동에서 해방하는 일이 그리 쉬운가고 하시며 승용차의 불빛까지 비쳐주시면서 모내는기계의 작업모습을 보고 또 보아주시며 완성시켜주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모내는기계만이 아니다. 오늘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 동음을 높이 울리는 갖가지 농기계들마다에 우리 수령님의 이렇듯 뜨거운 손길이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더욱 활짝 꽃펴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시기 위해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사회주의협동벌을 찾고찾으시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은 새 세기에도 끊임없이 이어지였다.

주체98(2009)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찬바람을 맞으시며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시해놓은 련결농기계들을 보아주시였다. 농장에서 자체로 제작리용하고있는 깊은층흙뒤집이기계,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논벼깊은층비료주는기계 등을 주의깊이 보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벼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오국협동농장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여 모든 일을 기계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찾으시여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시해놓은 각종 형태의 현대적인 트락또르와 벼종합수확기를 보아주시며 농사일을 기계로 하여야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찬란한 현실로 더욱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금성트락또르공장을 찾으신것이다.

못 잊을 그날 몸소 트락또르에 오르시여 운전을 하시면서 새형의 80hp트락또르 《천리마－804》호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얼마나 만족해하시였던가.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물론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세울것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농기계전시장부터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자력으로 만들어낸 80hp트락또르에 친히 오르시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사회주의대지우에 더욱 힘있게 메아리치는 기계화의 동음, 정녕 그것은 농기계생산을 위한 위력한 기지들을 마련해주시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주시여 우리 농업이 대대손손 번영할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길이 전하는 힘찬 메아리이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을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대지우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본때로 주체적인 륜전기계공업발전의 새로운 장을!

당에서 맡겨준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점령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오늘의 자력갱생대진군은 이런 열혈의 투사들을 부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업소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주체조선의 자동차들이라고, 볼수록 힘이 나고 호뭇하다고 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릴 그날을 그려보며 300여일간의 철야격전의 하루하루를 불타는 애국충정과 값높은 위훈으로 수놓아온 자동차생산자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현지지도의 그날 새형의 5t급 화물자동차들은 당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여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본때가 낳은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제시한 전투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헌신분투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과분한 평가를 받아안은 련합기업소일군들의 눈앞에는 치렬한 격전의 날과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넌초부터 시작된 화물자동차생산은 말그대로 걸음걸음 난관이였고 그 길은 난관극복의 련속과정이였다.

화물자동차 한대에 들어가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수가 손꼽을수 없을 정도였고 한두대도 아닌 목표대수에 해당한 부분품과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하는 일은 결코 조련한 일이 아니였다.

조건이 불리하다고 뒤로 물러설수는 없었다.

지난 1월 련합기업소에서는 일군협의회가 열렸다.

5t급화물자동차생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고 당에서 우리 로동계급을 믿고 안겨준 전투과업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다고 론할 권리가 없다. 우리에게는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줄줄이 철의 시련을 뚫고 벤주먹으로 40일만에 첫 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낸 전세대들의 투쟁전통이 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기어이 전투목표를 달성하자.

오철수당위원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립장은 단호했다.

일군들은 비상한 각오안고 분발해나섰다. 그들의 좌석는 들끓는 전투현장이였다. 당위원회의 해당 부서 일군들은 모두가 자동차생산의 주타격대상들을 라고앉았다. 부족되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찾아내고 기업소의 연혁사에 자욱을 남긴 년로보장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스스로 도와나서게 하였다.

온 련합기업소가 불도가니로 화했다. 기업소정문입구의 수십m나 되는 직관판에는 물론 구내와 전투장마다에 세워진 직관판들에도 새라새로운 소식들이 련이어 실렸다. 낮에 밤을 이어가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는 현장을 들썽들썽하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눈부신 활동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었다. 걸린 문제가 제기되면 솔선 말아나서 밤길을 걷기도 하고 전투원들과 한밤을 지새우기도 하며 말없는 이신작칙으로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한데 어울려 분초를 다투며 일손을 다그치는 속에 누가 일군이고 누가 로동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교대가 따로 없는 련속적인 전투로 모두의 눈은 벨겋게 충혈되고 피로는 날이 감에 따라 겹쌓여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기대길 뜨지 않고 설비들의 동음과 숨결을 같이했다.

그러던 지난 6월 련합기업소에서는 지금까지 한 일보다 몇배나 더 많은 일감을 놓고 심각한 총화가 진행되였다.

이제 우리가 그 파제를 수행할수 있겠는가?

엄숙한 물음앞에 자신들을 세워보는 최장일지배인, 김철웅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의 마음은 비상한 책임감으로 하여 무거워났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날에날마다 새로운 영웅서사시를 펼쳐가고있는 우리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처럼 영웅적으로 일해나간다면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세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며 총결사전에 진입했다.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대형차1직장과 정밀가공직장사이의 유기적결합을 실현하도록 작전을 펼치고 가공속도를 최대한 높이게 하였다. 대형차1직장에서 초벌가공을 하면 정밀가공직장에서는 그것을 되받아 완성가공을 하면서 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이것이 큰 은을 내기 시작했다. 기관본체, 감속기본체 등에 대한 가공에서는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키론관념이 타파되는 속에 가공속도를 2배나 높이는 새 기록이 창조되였다.

생산의 앞공정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회색주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체하여 부족되는 과철과 주철을 마련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렇게 화물자동차생산을 위해 하나의 박동으로 높뛰는 심장들이 있어 직장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40여종에 수십개의 주물품생산을 예정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소재직장에서는 보통때에는 엄두도 못내면 방대한 일감을 해제꼈고 주강직장에서는 알제동키본체를 비롯한 수십종에 150여개의 주강품을 생산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 뿐아니라 주물품과 주강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지구장비를 수백개나 제작보장한 금형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숨은 노력이 깃게 슬배여있었다.

자주호기관분공장에서도 총결사전이 벌어졌다.

변속기생산전투가 진행될 때였다. 한대분의 변속기를 만드는데 치차만 해도 20여종에 30여개가 들었다. 이 많은 크고작은 치차들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카공하여 조립하는 일은 헐치 않았다. 처음 해보는 일이여서 실패가 거듭되였다. 일이 이쯤 되자 손맥을 놓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어느날 변속기직장장은 조립한 변속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애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칫솔에 배부르겠소. 비약에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 저 굴발을 보시오.》

자력자강!

이 네글자에 새겨진 깊은 뜻을 다시금 심장에 조아박은 전투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대중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맞게 분공장에서는 2월 17일파학자, 기술자돌격대와의 협동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였다. 그런 속에 4종의 종삭반에 합리적인 지구를 제작도입하였다. 결과 어렵게만 여겨지던 정사진 부분에 대한 가공을 훨씬히 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한편 기관 총조립을 맡은 승리기관직장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리며 기관조립기일을 처음의 4일에서 2일로, 2일에서 하루로 앞당기며 생산돌격전을 들이쳤다.

최퀄헌동무를 비롯한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마지막기관조립시에는 종전의 기록을 또다시 뛰여넘어 하루가 아니라 한껏동안에 해내는 놀라운 위훈이 창조되였다.

그날 온 련합기업소가 떠쳐나 이들을 축하해주었고 명절마냥 기쁨으로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심은 곧 실현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만장약한 일군들과 로동계급이였기에 지난 9월말까지 결사의 각오안고 총조립을 전부 결속하는 자랑을 펼치였다. 이것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뚫고 헤친 자강력의 강자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였다.

오늘의 자력갱생대진군은 바로 이런 열혈의 투사들을 부르고있다.

보람찬 전투의 나날 기술과의 김만철, 고정수, 기술발전과의 고휘제, 김형순, 대형차제관직장장 김진홍, 자주제관직장장 정진석동무들은 물론 년로보장자들인 오옥규, 리락삼, 조능길동무들도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당이 맡겨준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정안남도당위원회와 기계공업성 일군들, 2월17일파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물론 협동생산품보장을 맡은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몸소 자동차에 오르시여 운전을 하시면서 화물자동차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말동소리가 고르롭고 변속도 잘되며 기관상태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말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난해 5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로력적선물로 생산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를 보아주시며 잘 만들었다고, 자력갱생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련합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그대로 최단기간에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수행할수 있게 한 자양분, 원동력으로 되였다.

특파기자 오 철 훈

영광의 날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

한상의 사진문헌을 보시며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승리산혁명사적관을 찾으시였다.

사적관의 서관에는 주체54(1965)년 5월 16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전신인 덕천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한 《승리-58》형화물자동차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깊은 감회속에 영상사진문헌을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으로 의의깊은 사진문헌이라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련합기업소는 지난 기간 어려가지 형의 수많은 화물자동차들을 생산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 거대한 공헌을 할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감격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동차의 성능은 운전해보아야 알수 있다고 하시며 몸소 자동차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시며 말동소리가 고르롭고 변속도 잘되며 기관상태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운전을 마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그처럼 어려웠던 전후시기 줄줄이 철의 시련을 뚫고 벤주먹으로 40일만에 《승리-58》형자동차를 만들어낸 전세대 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을 훌륭히 생산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그날의 말씀은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최상의 믿음이였고 값높은 평가였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후방공급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인것만큼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을 더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부르시여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련합기업소를 다녀가신 후 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또다시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물고기를 실은 자동차들이 도착하였고 온 기업소구내에는 사회주의바다랑기가 한껏 풍기게 되였다.

본사기자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리

승리산의 서사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조선로동계급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오랜 력사를 가진 자동차공장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는 그 어느 나라 자동차공장에도 없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련합기업소는 산세가 기묘한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다.

그 옛날 남뫼산으로 불리우던 이 산이 어떻게 승리산으로 되였고 이곳 로동계급의 마음속에 더없는 자랑으로 간직되게 되였던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39(1950)년 10월 20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뫼산의 독특한 지형조건을 헤아려보시고 이곳에 큰 공장을 건설하자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는 인민군용사들이 적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한 남뫼산을 승리산으로 부르도록 하여주시였다.

승리산의 탄생은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전화의 용사들이 세운 불멸의 위훈을 더를 이어 빛내여갈 신념의 키등을 굳건히 세워주었다.

이 신념을 안고 우리의 로동계급은 주체47(1958)년에 첫 화물자동차의 힘찬 발동소리로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경제건설은 물론 기상한 대자연개조공사에서도 승리산기슭에서 태여난 우리의 자동차들은 언제나 한몫을 하여왔다.

조국땅 방방곡곡으로는 우리의 자동차들이 기운차게 달리고 또 달리였다. 경제건설은 물론 기상한 대자연개조공사에서도 승리산기슭에서 태여난 우리의 자동차들은 언제나 한몫을 하여왔다.

그 나날 이곳 로동계급은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줄기차게 이어진다는 것을 뼈에 새겼다. 나라의 경제형편으로 하여 기업소가 어려움을 겪고있을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을 찾아오시여 전후 당중앙을 자동차생산으로 결사옹위해온 그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라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날의 사랑과 정을 우리 원수님께서 뜨겁게 이어주시여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불굴의 정신력을 폭발시킬수 있은 것이다.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로력적선물인 새형의 5t급 화물자동차를 몸소 보아주시며 로동계급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면 화물자동차를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생산한것은 우리 당의 옳바른 경제정책을 받들고 천리마를 단 기세로 달리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위력을 시위하는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는 뜻깊은 축하문을 력천자동차공장(당시)에 보내주신것 아니라.

그 사랑과 믿음은 1960년 한해동안에 수천대의 화물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적을 낳게 하였던것이다.

지난 세기의 잊을수 없는 력명의 년대들에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시기마다 제기되는 자동차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 환희와 격정이 무한한 힘과 열정으로 되였기에 이곳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파감한 총공격전을 벌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존엄을 빛내였고 마침내 승리산기슭에 장쾌한 풍경을 펼쳐놓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드넓은 주차장을 꽉 메우고 즐비하게 서있는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힘을 믿고 멸쳐일어나 만들어낸 주체조선의 자동차들이라고, 볼수록 힘이 나고 호뭇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전승의 위훈이 아로새겨진 승리산기슭에 즐지어 늘어선 자동차대렬,

그것은 그대로 위대한 태양을 모시여 승리산의 서사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영원히 이어질것이라는것을 확신하게 하는 력사의 화폭인것이다.

본사기자 차 수 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비약의 돌파구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제기일에 수행할수 있은것은 물질의 투쟁정신에 과학기술력이 든든히 안받침되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략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이곳 기업소의 그 누구를 만나 물어보아도 한결같이 더놓는 말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성능높은 CNC기계들이 있었기에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을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생산해낼수 있었다는것이다.

이곳 련합기업소의 정밀가공직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동차부속품을 가공하는 우리의 CNC기계들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누구나 당보지면을 통하여 뵈왔을것이다.

바로 그 기계들이 주체98(2009)년 3월 이곳 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동차생산의 현대화를 위하여 보내주신 CNC기계들이다.

고난의 시기 몸소 새 세기 산업혁명의 선구자, 개척자가 되시여 우리 장군님께서 눈물겨운 헌신으로 마련해주신 CNC기술이 이렇게 자력자강의 억센 동력이 되여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는 생각에 뜨거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다.

뜻깊은 사연이 어려있는 정밀가공직장의 CNC기계들로 이곳 로동계급은 기관본체, 기통머리, 련결대, 뒤차축본체 등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의 주요부속품가공을 원만히 진행하였다.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에 도입된 과급기만 하여도 지난 시기 그 가공때문에 애로를 느끼던것을 우리 식의 현대적인 CNC기계로 척척 만들어 설치해놓으니 자동차기관의 성능이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우리는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를 설계한 련합기업소의 자동차설계연구소도 돌아보았다.

지난 시기 《자주-64》형, 《건설》호, 《금수산》호를 비롯한 화물자동차들을 설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 기다란 기쁨을 드리는데 이바지한 이곳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설계를 기존관례보다 훨씬 앞당겨 수행하였다.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파감한 결사전을 벌린 이곳 설계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멘손으로 첫 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내던 전세대들처럼 일군들도 설계가들도 한마음한뜻이 되여 낮에 밤을 이어 수천매에 달하는 설계도면을 완성하던 그 나날을 어찌 말과 글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더욱 놀라운것은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공헌한 설계가들속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이 얼마나 정당하며 현실에서 얼마나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가를 누구나 더욱 깊이 느낄수 있을것이다.

이밖에도 과학연구기관들과 여러 대학들에서 달려나온 과학자,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도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은 당중앙결사옹위의 신념,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에 과학기술을 더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힘있게 시위한 자랑찬 창조물들인것이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가 당앞에 명세한대로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동차공업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키자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걸쳐주신 휘황한 설계도가 있고 당이 준 과업이라면 그 무엇이나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충직한 로동계급이 있으며 창조와 진실의 무궁무진한 동력으로 장성강화된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있는 한 그 어떤 험단의 봉우리도 반드시 점령되고야말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사회주의숨결이 맥박치는 황북땅에 높이 울린 최후승리의 전진가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사리원시에서 성황리에 진행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사리원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황북땅에 울려퍼진 최후승리의 전진가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구마다에서 올해전투승리의 통장훈을 울려가고있는 황해북도인민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백배해주었다.

주체철의 증산으로 자랑높은 황철의 용해공들,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 미루벌의 농장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신계, 토산, 장풍군 등 도안의 곳곳에서 온 군중들로 황해북도예술극장은 매일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관람열기는 날을 따라 고조되였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줄기차고 억센 향도의 힘으로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계에 힘있게 떨치고 이 땅우에 혁명의 최전성기,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를 펼친 우리 당을 칭송하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당이여 그대 있기에》, 《당을 노래하노라》 등의 노래들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아로새기며 그 어떤 천지지변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여온 조선로동당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의 정으로 가슴 들먹이였다.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철의 도시 밤하늘에 붉은 놀이 내리네》와 설화시 《황북땅아 후손만대 전해가자!》는 력사의 고장에 뜨겁게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대대손손 빛내이며 일편단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황해북도인민들의 혁명적의지를 더해주었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천지개벽된 황북땅에 넘쳐나는 인민의 행복과 랑만을 싣고 울려퍼진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미루벌의 종다리》, 《벼가을하러 갈 때》, 《황금산타령》은 장내를 흥겨운 춤판으로 들썩이게 하였다.

기적의 만리마를 타고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해 질풍처 내달리는 조국의 벅찬 현실을 경쾌하고 기백넘친 률동으로 펼쳐보인 가무 《보란듯이》,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 타프춤 《청춘시절》도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하였다.

경음악 《단숨에》,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강위력한 힘을 키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세기를 이어 백승을 떨쳐가는 영웅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우리의 생명이고 신념인 사회주의의 한길로 굽힘없이 진진해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담은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로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준 공연은 종곡 《그이 없인 못살아》로 끝났다.

매 종목이 끝날 때마다 관람자들이 무대에 올라가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으며 인상깊은 공연을 보여준 명배우들의 수표를 기념수첩에 남기였다.

최후승리의 총돌격전에로 부르는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하며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황해북도인민들에게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관람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공연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필승불패성을 과시한 공연이였다고 하면서 부강조국의 래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보다 큰 승리와 비약을 이룩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공연무대를 펼쳐준 당의 크나큰 은정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황북땅을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차넘치는 인민의 제일락원으로 보란듯이 꾸려갈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사리원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은 천만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드높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황해북도인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비상히 높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서부지구 탄전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사상전의 위력한 포성

화력탄보장단위들에 경제선동의 화력을 총집중

서부지구의 탄전들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 탄전들에서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혁명의 북소리,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탄부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북돋아주는 경제선동대원들의 전투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전소들과 탄광들이 혁명적열정과 투쟁으로 들끓고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일터마다 혁명적열정과 증산투쟁으로 들끓고 창조와 혁신의 기백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경제선동중앙지휘부 일군들은 중앙예술경제선전대와 여러 도, 시, 군의 경제선동대원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참신한 경제선동활동으로 화력탄보장단위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더욱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고 화선식경제선동의 도수를 보다 높여나감으로써 북창의 대동력기지와 서부지구 탄전, 화력탄수송을 맡은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고있다.

일군들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이 힘차게 벌어지는 전투장들에 내려가 낮에는 선동공세를 들이대고 밤에는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창작의욕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경제선동대원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북창과 득장, 덕천지구의 탄광련합기업소에 전개한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황해남도안의 경제선동대원들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자기들도 한몫한다는 드높은 자각안고 한결같이 떨쳐나 탄전들에 혁명적기백과 열정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 나간 평안남도안의 경제선동대들이 맹렬히 활약하고있다.

여러 단위의 경제선동대원들은 탄전에 활력을 부어주고 약동의 숨결이 높뛰게 하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높여 련합기업소아래 모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전형단위로서의 자랑안고 총진군대오의 전렬에서 줄기차게 내달리게 하고있다.

인포청년탄광에 찾아간 경제선동대원들은 혁신자들에 대한 소묘를 하여 게시하고 벽시들을 창작하여 탄부들의 증산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또한 갱막장에 들어가 탄차를 함께 밀면서 격식없이 진행하는 이들의 화선선동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고있다.

득장지구에 달려나간 황해북도안의 경제선동대원들은 격동적인 화선선동으로 탄부들이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드높이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을 더 세차게 벌리도록 그들의 열기를 더해주고있다.

덕천지구에 파견된 황해남도안의 경제선동대원들은 서창청년탄광과 덕성탄광의 갱막장들에 들어가 탄부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겨주고 그들과 어울려 일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순천전역과 개천지구에서도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드세찬 선동공세가 벌어지고있다.

순천전역에 나간 평양시안의 여러 경제선동대들에서는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감명깊게 펼쳐보이면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활동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특히 갱막장에서 탄부들이 거둔 성과를 즉시 알려주어 경쟁열을 높여주고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출갱하는 탄부들에게 꽃다발도 안겨주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２．８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경제선동대들의 참신하고 호소성이 강한 선동활동은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게 하는 송풍기로 되고있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나간 남포시안의 경제선동대원들은 조양탄광 탄부들속에서 경제선동활동을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들은 혁신자들을 소개하는 전투속보발간을 참신하게 하여 탄광이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전투적인 선동활동으로 탄광들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주고있는 경제선동대원들속에서는 탄부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노래만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소행들도 많이 발휘되고있다.

여러 도, 시, 군들에서 달려나온 경제선동대들의 화선선전, 화선선동공세와 대동력기지와 서부지구 탄전들의 각 기동예술선동대들의 힘있는 경제선동활동이 합쳐져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북창과 순천전역, 개천지구를 진감하고있다.

각 탄전의 일군들은 기동예술선동대원들로 하여금 탄광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다채롭게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이신작칙을 하면서 혁명의 북소리,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더욱 고조되게 하고있다. 그것은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자강력으로 수천척지하막장에 값높은 생의 자욱을 새겨가는 탄부들에게 무비의 힘을 낳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북창의 대동력기지와 서부지구 탄전들에서는 전투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더욱 활활 타오르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각 탄광들에서는 년간 굴진계획과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북창과 순천전역, 개천지구에 울려퍼지는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는 대중의 심장마다에 마를줄 모르는 열정과 활력을 부어주고 전투장마다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특파기자

용기백배하여 석탄산을 더 높이

지금 우리 득장청년탄광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의 기세가 매우 좋다. 련합기업소의 기동예술선동대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여러 예술단체들과 기동예술선동대들이 이렇게 달려와 매일같이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주니 모두가 힘이 부쩍 솟는다고 이야기하고있다.

그들이 펼치는 다양한 선동작품들도 좋지만 탄차도 함께 밀어주고 성의껏 마련해가지고와서 안겨주는 지원물자들은 또 그대로 우리 탄부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다.

탄전마다에 펼쳐지는 이런 광경은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화폭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석탄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당중앙의 불빛, 사회주의불빛을 지켜가겠다.

득장청년탄광 김혁청년돌격대 대장 주철민

＊ ＊

솔직히 수도시민들도 우리처럼 자기 일터에서 이렇게 많은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볼수 없을것이다.

수백리 먼곳에서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단체들이 련이어 달려오고 혁신자들에게 축하의 꽃목걸이도 걸어주면서 열정넘친 선동공연을 펼쳐놓으니 탄광마을이 명절처럼 흥성인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공연종목들에서 절로 웃음과 희열만을 받아안는것이 아니다. 나라의 석탄전선을 지켜선 우리 탄부들이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앞장서달라는 조국의 절절한 당부를 새겨안는다.

석탄전선은 념려말라.

한몸이 그대로 동발이 되고 착암기가 되여서라도 기어이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겠다.

막장을 뒤흔드는 발파소리와 팽팽 돌아가는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동음으로 우리는 어머니당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릴것이다.

제남탄광 2갱 갱장 전순봉

＊ ＊

미제가 우리의 승리적진전을 가로막아보겠다고 극악한 제재에 계속 매달리고있지만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혁명적인 사상과 노래가 몇백만의 식량보다 더 위력한 힘으로 된다는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것 같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은 노래로부터 시작되었고 노래속에서 전진하여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한 혁명이라고 교시하신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적으로 결속하였고 오늘도 혁명의 진군가를 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삼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우리가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고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은것도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한 철입식사상사업에 근본비결이 있다.

이 땅에서 불빛이 영원히 꺼지기를 바라는 원쑤들이 보란듯이 혁명의 노래에 발맞춰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겠다.

서부지구 탄전들에 울려퍼지는 집중경제선동의 북소리는 그대로 더 높은 석탄산과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지배인 고명철

어디서나 기다리는 사람들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원들

영화예술인들이 왔다!

서부지구 탄광들에서 이런 반가움의 목소리가 련일 울려나오고있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등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절찬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퍼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사상전의 전초선에는 우리 예술인들이 서있으며 그들은 사상전선을 지키는 전초병입니다.》

영화예술의 특성으로 하여 그 창작에 이바지하는 예술인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것은 당연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지금 서부지구 탄전을 뒤흔드는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활동은 비단 그로 하여서만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것이 아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４．２５예술영화촬영소, 평양영화음악록음소, 텔레비죤극창작사 등 여러 예술단체의 예술인들로 조직된 선동대는 지금 노래와 극작품을 비롯한 １０여편의 선동작품들을 준비해가지고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영화에서는 각이한 직업과 나이를 가진 등장인물로 출연하지만 마치 탄전에서 나서자란 예술인들처럼 이번에 준비해가지고온 선동공연의 모든 종목들이 어쩌나 생동하면서도 성의가 느껴지는지 떠나보내고싶지 않다고 누구나 이야기한다.

문화성 책임부원 리영복동무는 이번 공연종목들을 준비하기 위해 선동대의 모든 예술인들이 긴장한 전투를 벌렸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리하여 《가리라 백두산으로》, 《장군님 지켜가리》 등의 노래들과 촌극 《애국의 마음》, 《자기 힘을 믿으라》를 비롯하여 호소성이 강하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종목들이 빠른 시일안에 완성될수 있었다는것이다.

그들의 공연이 얼마나 구수하고 감동깊었던지 사람들이 두번, 세번 재청을 하는가 하면 종목들이 끝날 때마다 꽃다발도 가슴이 모자라게 안겨준다.

예술인들과 관중들이 한데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그 모습은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하루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갱을 나서는 탄부들에게 꽃목걸이도 걸어주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영화예술인들의 뜨거운 정은 보다 새로운 위훈과 혁신에로 추동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지금 서부지구 탄전들의 일군들과 탄부들, 그 가족들은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의 공연을 당정책관철에서 그 어느 부문보다 앞장서나갈것을 바라는 조국의 전투적호소로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당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더 높은 석탄증산성과로 보답하자!

어디서나 기다리는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는 이런 불같은 당부를 탄전마다에 남기면서 공연길을 계속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석탄증산에 우리도 한몫

신양군기동예술선동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신양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남덕청년탄광에 달려와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불타는 일념안고 투쟁하는 탄부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을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잡도리부터 단단히 하고 경제선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현지에 배낭을 벗어놓은 즉시 탄광의 갱들을 돌아보았으며 그에 기초하여 면밀한 경제선동활동계획을 세웠다.

기동예술선동대에서는 아침첫 시간에 탄부들의 출근길환영을 진행할뿐아니라 갱들에 찾아가 혁신자축하모임도 의의깊게 펼쳐놓고있다.

원쑤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석탄폭포로 짓부셔버리자는 격동적인 선동에 이어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과 탄부들의 생활을 반영한 노래들을 부르는 축하모임은 탄부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축하모임이 끝난 후 탄부들에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성의가 깃든 지원물자들을 안겨주어 그들의 가슴마다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기동예술선동대에서는 탄부들이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속보판들에 반영하여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그뿐만아니라 기동예술선동대에서는 탄광혁신자들의 가정방문도 조직하고있다.

전투적이면서도 참신한 경제선동을 진행하고 탄부들의 가슴에 따뜻한 정을 부어주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모습은 탄광로동계급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이들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신양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가 있었기때문이다.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은 화력탄보장을 위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석탄전선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것이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하고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기동예술선동대원선발로부터 시작하여 악기, 음향기재보장에 이르기까지 선동대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풀어나갔으며 선동대원들이 탄광에 사소한 부담도 주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다.

선동대원들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한사람이 １０곡이상의 노래를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부를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갔다. 군안의 많은 일군들과 단위들에서 탄부들에게 자기들의 마음도 전해달라고 하면서 식료품과 장갑을 비롯한 지원물자들을 마련해주었다.

남덕청년탄광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탄부들의 정신력발동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신양군기동예술선동대는 이처럼 탄부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률

전세대의 투쟁기풍을 이어

집중경제선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서부지구 탄전들에서 사람들의 류다른 찬사를 자아낸 예술단체가 있다.

국립교예단 보통강창작단의 예술인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가해주신 요술 《시계와 봉투》와 함께 《２인공치기》, 《３인발재주》 등 １０여편의 다양한 교예종목들을 가지고 경제선동길에 오른 이곳 창작단의 예술인들은 단순히 재주와 기교로 해서만이 아니라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하여 사람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

교예배우들이 추운 겨울조건에서 여러 탄광들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진행하자면 적지 않은 애로가 제기되게 된다.

그러나 이곳 창작단의 예술인들은 당에서 중시하고있는 석탄전선을 고무추동하는 선동활동을 절대로 멈출수 없다는 드높은 각오를 안고 수많은 탄전들을 찾아 공연길을 이어갔다.

남덕청년탄광에서 공연을 끝마치고 다른 탄광으로 가게 되었을 때였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려서 령길을 오르던 뻐스가 자주 멈춰서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요술배우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은 어깨로 뻐스를 밀면서 한치한치 령길을 톺아올랐다.

참으로 그 모습들은 전화의 나날 눈내리는 １２１１고지에 올라 교예무대를 펼쳐놓고 싸우는 병사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던 전세대 교예배우들의 투쟁모습그대로였다.

수도의 극장무대에서는 사람들의 꽃다발을 아름이 넘게 받군 하는 배우들이지만 탄부들에게 오히려 꽃송이를 안겨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당의 뜻을 결사의 투쟁정신으로 받들어나간 국립교예단 보통강창작단의 예술인들은 탄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우렁차게 울려퍼진 자랑스러운 한해

인민의 영원한 삶의 요람

참으로 눈부시고 격동적인 한해가 저물어간다.

5천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희한한 사변들과 경이적인 기적들을 이 땅우에 아로새긴 2017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신심드높이 달려온 자랑찬 한해의 자욱자욱을 돌이켜보는 이 시각 우리의 귀전에 들려온다. 뜻깊은 올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더욱 높이 울려퍼진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의 우렁찬 메아리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여있는 참다운 조국입니다.》

잔악한 원쑤들은 이해의 첫걸음부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칼을 품고 달려들었다. 우리 조국의 날과 달은 말그대로 총포성없는 격전의 순간순간이였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심장으로 터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더욱 높이 울려퍼졌으니 주체106(2017)년은 그렇게 흘러왔다.

우리 당은 뜨거운 열과 정으로, 인민사랑의 정치로 사회주의보금자리를 지켰고 인민의 웃음소리, 커가는 인민의 행복으로 2017년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감회도 새롭다.

새해의 첫 기슭에서 울려퍼진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의 새집들이소식! 그것은 이해에는 또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 이 땅의 가정들과 사람들에게 안겨질것인가를 예고하는것과도 같은것이였다.

지금도 희한하게 일떠선 로동자궁전에 새집들이한 첫날밤 불밝은 호실들에서 한밤이 지새도록 울려나오던 웃음소리가 귀전을 맴돈다.

합숙생들에게 밝은 웃음과 노래를 안겨주시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치신 로고는 천이던가, 만이던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에서 새집들이가 있었다는 소식에 접하고 이 공장에 딸을 둔 한 어머니가 눈굽을 적시며 뜨겁게 터놓은 고백이 있다.

《우리 어머니들은 딸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이젠 다 키웠구나 하고 훌쩍 공장에 내보냈지만 우리 원수님께서 그 숱한 자식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느라고 고생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이 나라 어머니들이 눈물속에 터치는 이 말에는 위대한 우리 당,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진정넘친 감사의 정이 고여있다. 이런 고마움의 목소리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높이 울려퍼진 올해 새집들이를 한 평남탄전의 탄광마을과 함흥과학자살림집들에서도, 은산군에 일떠선 100여세대의 살림집과 머나먼 북변땅의 아담한 살림집들에서도 들을수 있다.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가 자기의 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도 올해이다.

려명거리!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가슴은 긍지로 부풀고 눈굽은 쩌릿이 젖어든다.

지난 3월 창조의 불빛 환한 건설장을 찾으시여 사회주의 내 조국의 동이 터오는것만 같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그 영상, 이 땅에 행복의 새 아침이 어떻게 동터오는가를 가슴치게 새겨주는 화폭이 아니였던가.

우리 혁명신화창조의 실록을 번진다. 려명거리건설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페지마다에 눈물겹게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도해주신 려명거리형성안은 무려 천수백건, 분수물놀이장의 113건의 형성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또 이렇게 가슴뜨거운 헌신의 실록이 여기 행복의 새 거리에 새겨진것이다.

려명거리의 상징과도 같은 70층살림집은 그대로 려명거리건설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금도 이 건축물앞에 서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어려온다. 아직 시운전상태인 승강기를 타시고 몸소 70층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70층의 살림집들에 차례로 들려보시며 인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눌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진정 자식들을 위한 고생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그대로였다. 세상에 어느 령도자가 집주인들이 들기도 전에 새 살림집을 찾아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리용할 부엌의 편리성을 가늠해보기도 하고 공동살림방의 쏘파에도, 아이들의 방에 놓인 작은 의자에도 앉아보며 그토록 다심한 정을 기울인적이 있었던가.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며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설장을 찾고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로고가 바로 그날 우리 원수님의 외투자락에 묻은 연마가루에 천만근의 무게로 어려있는것이다.

볼수록 눈부시고 황홀한 거리, 사회주의문명의 리상거리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외국의 벗들도 찬탄을 아끼지 않는 려명거리는 이렇게 솟아올랐다.

려명거리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은 그런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속에 마련되였다.

뜻깊은 올해에 온 나라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보금자리들의 주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평범한 과학자, 지식인들이였다.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탄부들과 협동벌을 가꾸는 농업근로자들이였다. 나라에서 궁궐같이 일떠세워 돈 한푼 받지 않고 배정해준 그 집집마다에서 격정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온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제일이다!

올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로씨야국가회의 로조친선의원단 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려명거리건설소식에 접한것은 지난해였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새 거리가 일떠서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오늘 완공을 앞둔 희한한 거리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니 정말 놀랍기만 하다. 더우기 우리의 심금을 울린것은 이렇듯 훌륭한 살림집들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중심에 놓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설계하시고 구상하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계신다. 그이와 같이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분은 세상에 없다.》

그렇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이다.

창조와 변혁으로 보람차고 행복과 랑만으로 아름다왔던 뜻깊은 올해를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밀물처럼 솟구쳐오르는 생각은 하나같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인민의 보금자리는 굳건하고 원수님만 따르고 받들면 인민의 행복은 영원하다.

본사기자 리경일

어머니당의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입니다.》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온 나라 가정들마다에 알게모르게 스며들어 인민의 웃음꽃이 더 소중했던 이 한해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다.

나이에 맞추어 영양가를 따져가며 자식을 키워보았는가고.

《고기, 우유, 산유, 영양즙, 당과류… 입원해있는 근 70일간 매일같이 시간맞추어 와닿던 당의 은정어린 그 사랑속에 내 아들은 모두가 놀랄 정도로 몸무게가 늘어났습니다. 낳아준 어머니도 단념했던 나의 아들에게 새 심장, 새 모습을 안겨준 우리 원수님께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큰절을 드립니다.》

이것은 옥류아동병원에서 두번다시 태여난 아들을 안고 병원문을 나서며 한 군관의 안해가 감상록에 남긴 글의 한 대목이다.

얼마전 우리는 보건성 국장 정무림동무에게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옥류아동병원이라고 해도 여섯달부터 스물네달사이, 두살부터 네살사이… 이렇게 환자들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갈라놓은 부류만도 여러가지인데 매 부류마다 국가공급기준량이 다 다르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또 병원마다 국가공급기준량이 각이하다.

안과병원이라고 하면 물고기나 동물의 간을 비롯한 비타민A성분이 많은 건강식품들이 더 공급된다. 산모들의 국가공급기준량은 특별히 더 높은데 그중에서도 세쌍둥이어머니는 또 다르다고 한다. 환자들이 앓고있는 질병에 따라 필요한 영양분을 가장 과학적으로 섭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성과 과학연구기관에서 국가공급기준량을 정하는데만도 많은 품을 들였다니 그 기준량대로 환자들에게 국가적혜택이 와닿기까지에는 또 얼마나 많은 품이 들어야 할것인가.

상업성에는 그 사업을 전문으로 맡아하는 국이 있다. 그곳에서 병원들에 공급하는 물자들에는 마늘, 고추가루를 비롯한 조미료들은 물론 과일들도 있다. 그 어디서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한 물자보장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그 물자보장을 위해 지성을 기울이는 성, 중앙기관만도 한둘이 아니다. 하는 일은 서로 다르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 모든 곳에서도 역시 그 사업은 가장 선차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다.

상업성의 한 일군은 이렇게 생각깊이 말하였다.

《모든것이 풍족할 때 베풀어지는 사랑이라면 이다지도 가슴뜨겁겠습니까. 친부모라고 해도 그렇듯 따사롭고 세심하게 자식의 매끼 식사를 두고 잠못 들며 마음쓰지는 못할것입니다.》

온 나라 대가정을 돌보시느라 어느 하루도 마음편히 쉬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병원들에 공급해야 할 부식물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까지 다 알아보시고 입원한 환자들에게 부식물을 국가공급기준량대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여기에 다 쓰지 못한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당에서는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실지 피부로 절감하면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참으로 민족사적사변도 경사도 많았던 주체106(2017)년의 갈피에 우리는 이렇게 새겨넣는다.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베푼 어머니당의 은정이 끝이 없었던 해이라고.

본사기자 조향선

세상에 부럼없어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단우에 꽃이라고 누구나 말하였다.

지난 4월 1일 우리가 만든 멋쟁이책가방을 메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두고, 행복의 단시와도 같은 크지 않은 이 화폭을 두고 온 나라 학부형들이 얼마나 가슴뭉클했던가.

개학날 대동강구역 옥류소학교 1학년 2반 학생 최림성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었다.

《이렇게 아들을 앞세우고 개학식장에 오고보니 멋진 새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까지 마련해주어 12년제꽃대문에 들어서게 해준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이 젖어듭니다.》

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개학날에 있은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우리는 뜻깊은 올해의 첫 기슭에 서본다.

우리 원수님의 평양가방공장 현지지도!

온 나라 인민이 받아본 지난 1월 5일부 당보 1면에 실린 소식이였다.

멋쟁이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신 우리 원수님.

이렇게 시작된 한해였다. 여기서 파도쳐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바다였다.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해 평성, 강계, 신천, 혜산, 해주가방공장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손꼽히는 조국의 명당자리들마다에 있는 아이들의 궁전이며 야영소가 희한하게 전변되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훌륭히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 야영이 진행되였고 9월 8일에는 회령학생소년궁전이 준공되여 시안의 학생소년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어찌 그뿐이랴. 재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우라고 희한한 궁전들과 야영소, 소년회관들을 일떠세우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신 사랑 적으신듯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온 한해 사랑과 정을 다하시였다.

지난 2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사랑의 악기들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4월에는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에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조국땅 북변의 회령학생소년궁전으로부터 분계연선도시의 개성학생소년궁전, 동해지구의 원산학생소년회관, 서해기슭의 선천군학생소년회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곳곳에 자리잡고있는 학생소년과외교양기지들에 어머니당의 사랑이 어린 악기들이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새 세대들의 희망과 재능이 활짝 꽃펴나는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 인재교육의 원종장으로 멋들어지게 꾸려주시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기재들을 거듭 안겨주신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은정어린 뻐스들을, 11월에는 만경대혁명학원에 교육용통전기재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사회적으로 3월과 10월 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교육지원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졌다.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의 한 일군은 전국적으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 교사건설과 개건보수가 힘있게 진척되고있는 가운데 모든 시, 군들에서 본보기학교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고 하면서 올해 교육부문에서 본보기학교건설과 더불어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졌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올해에도 국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많은 품을 들이였다.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고 노래부르며 마음껏 배우고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는 우리 아이들, 꿈도 많고 희망과 포부도 큰 그들의 행복을 가꾸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우리 아이들의 심장의 목소리,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내 조국의 하늘가에 랑랑히 울려퍼진다.

경애하는 원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본사기자 오은별

세월이야 가보라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시대의 영웅들과 공로자들을 내세워주며 후대들을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들을 적극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더욱 꽃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한해였다.

사변과 경사도 많았던 이해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련이어 전해진 하나의 소식이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의 가슴을 마냥 후덥게 하여준다.

지난 4월 30일부 《로동신문》에는 남포시 와우도구역의 양지바른 곳에 전쟁로병보양소가 새로 건설되여 준공한 소식이 실렸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서뿐아니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배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존경하며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세계앞에서 온 나라 천만군민이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였다.

그렇게 시작된 기쁨의 새 소식은 련이어 전해졌다.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에 이어 얼마후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황해북도에서,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량강도와 함경남도에서, 또 그 다음은 강원도와 평양시에서…

전쟁로병보양소뿐이 아니였다. 평양양로원에 뒤이어 황해북도양로원이 준공의 테프를 끊고 각 도들에서 양로원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지난 7월 풍치수려한 룡악산기슭에 새로 일떠선 평양시전쟁로병보양소에서는 시안의 전쟁로병들의 첫 보양이 진행되였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휴식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종합적인 보양기지에서 전쟁로병들은 꿈과도 같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다.

하기에 옛 고사포중대장이였던 광봉린전쟁로병은 이곳에서 10년은 젊어진것 같다며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지 않았던가.

《예로부터 룡악산이란 지명은 산봉우리가 마치 룡이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과도 같은 기묘한 생김새를 갖추고있다는데서 유래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전쟁로병들이 어머니당의 사랑속에 전설속의 룡이 되여 막 하늘로 날아오르는 심정입니다.》

얼마전 함경북도전쟁로병보양소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낸 청진시 신암구역 천마동에서 살고있는 홍우현전쟁로병은 본사편집국으로 보내온 편지에 이렇게 썼다.

《…매일 매끼 식탁에 오르는 진수성찬이며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친혈육의 정을 다해 돌봐주는 보양소일군들과 종업원들,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밤잠을 잊다싶이 애쓰는 의료일군들의 정성에 떠받들려 우리 보양생들모두는 마치도 혈기왕성한 청춘시절로 되돌아간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세월이야 가보라지〉라는 노래소리가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심장속에서 절로 터져나오는 《세월이야 가보라지》!

진정 나라의 곳곳마다에 일떠선 전쟁로병보양소와 양로원들에서 그칠새없이 울려퍼진 랑만과 희열에 넘친 노래소리와 웃음소리는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였다.

어찌 전쟁로병보양소와 양로원뿐이랴.

풍치수려한 명승지와 공원, 유원지들에서는 경쾌한 민요가락에 맞추어 어깨춤을 들썩이는 년로자들의 행복넘친 모습과 함께 마음과 마음사이에 치렬하게 벌어지는 년로자들의 배구경기와 장기, 윷놀이경기로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온 나라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내세워주는 고상한 사회적기풍이 더 활짝 꽃펴났다. 화려한 극장무대들은 년로자들과 예술인들의 련환공연으로 이채를 띠고 급양망과 편의봉사시설들은 로인들을 위한 특색있는 봉사로 흥성이였으며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양로원들을 찾아가 보양생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아름다운 화폭이 온 나라에 펼쳐졌다. 올해에만도 여러명의 백살장수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진정 어머니 우리 당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속에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즐기는 우리의 년로자들이야말로 얼마나 긍지높고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 사랑을 전하며, 그 행복을 노래하며 이해의 마감에도 우리의 혁명선배, 년로자들이 진정 담아 터치는 삶의 메아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끝없이 메아리쳐간다.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본사기자 리남호

아름다운 우리 사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뜻한 정 넘치는 이 땅에 꽃펴나는 미풍들을 수없이 전하며 흘러온 한해였다.

뜻깊은 새해 첫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소행들을 전하며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해의 마지막달에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계속 이어지고있다.

얼마전 개성시 동흥동에 사는 김광선로인은 본사편집국앞으로 보내온 편지에서 지난 11월 12일 달리는 렬차안에서 뜻밖에 사경에 처하였던 아들을 위해 진정을 바친 렬차승무대원들과 대동강역 일군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병원 의료일군들의 소행을 전하면서 이렇게 썼다.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에 공기처럼 흐르는것이 사랑과 정입니다.》

이뿐이 아니다.

큰물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을 위해 보금자리도 마련해주고 집집에 땔나무까지 마련해준 인민군군인들을 알게 된 후부터 그들을 위해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계속 보내주고있는 라선시 라진지구 역전동에 살고있는 허철금동무와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며 40여년세월 당세포위원장으로 일하다가 순직한 혁명동지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히 자라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고있는 체육성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한 영예군인의 친혈육이 되여 수년세월 진정을 다 바치고있는 대동강구역의약품관리소 로동자 리명희동무에 대한 이야기…

끝이 없는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찬가와도 같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의 사회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목숨바쳐 지키는것 아닌가.

온 한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전해진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그것이 곧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본태이기에!

본사기자

《신북방정책》은 파탄을 면할수 없다

최근 그 무슨 《신남방정책》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분주탕을 피우던 괴뢰들이 요즘에는 또 《신북방정책》을 입에 올리며 설레발치고있다.

《신북방정책》을 전면에 내든 괴뢰당국자들은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유라시아지역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균형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떠들고있다. 이미 괴뢰들은 지난 7월 《신북방정책》을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 조아박고 《대통령》직속기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것을 내왔다. 한편 남조선집권자는 해외행각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신북방정책》에 대한 해당 나라들의 지지와 협력을 구걸하였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느니,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느니 하고 한바탕 력설하였다.

지금 괴뢰들은 《신북방정책》이 실현되면 《경제활성화와 안보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신북방정책》에 깔린 괴뢰들의 속심을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괴뢰들이 《신북방정책》을 통해 노리는것은 명백하다. 《경제협력》의 간판을 들고 주변나라들과 중앙아시아지역 나라들 등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에 접근하여 그 나라들을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에 끌어들임으로써 《핵페기》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자는것이다.

괴뢰들의 《신북방정책》이라는것은 결코 새로운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시기 전두환, 로태우역도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가로막고 우리를 《개혁》, 《개방》에로 유도하여 《체제통일》망상을 실현할 계책밑에 발광적으로 추진하던 《북방정책》의 재판이다. 당시 괴뢰들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정치, 외교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북방정책》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사실상 《교차접촉》, 《교차승인》의 방법으로 《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괴뢰들의 정치외교적술책이였다. 보는바와 같이 《북방정책》에는 괴뢰들의 분렬주의적이며 대결적인 속심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광고하고있는 《신북방정책》이라는것도 본질상 다를바 없다. 그것은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을 꼬드겨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의 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 동족대결정책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는 괴뢰들의 반민족적흉계는 내외의 규탄과 배격을 면할수 없다.

지금 괴뢰들이 《신북방정책》이니, 《신남방정책》이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안보문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문제는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여 풀어보려는 《줄타기전략》에 따른것이다. 괴뢰들이 《신북방정책》에 따라 《외교의 지평을 북쪽으로 확장》하겠다고 떠벌이고있는것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신북방정책》을 내들고 미국과 기타 다른 나라들사이에서 량다리치기를 하며 이것저것 다 얻어보려는 괴뢰들의 타산은 그야말로 허망하고 실현불가능한것이다.

괴뢰들의 속타산은 미국에는 안보를 의탁하고 그 적수들인 조선반도주변나라들에는 경제를 의탁하는것인데 미국상전이 그것을 용납할리 만무하다. 미국은 괴뢰들이 안보도 경제도 오직 저들에게만 의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트럼프패당이 현 남조선당국에 거액의 미국제무기수입,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강요한것도 괴뢰들을 안보와 경제의 두 측면에서 저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키고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미국의 철저한 주구들인 괴뢰들이 상전의 눈밖에 나면서까지 주변나라들과 거래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괴뢰들이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보장받고 주변나라들로부터는 경제적혜택을 얻으려는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자들이 《신북방정책》으로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겠다고 광고하는것도 위선의 극치이다.

도대체 괴뢰들에게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에 핵전쟁괴물인 《싸드》를 배치하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핵전략자산들을 닥치는대로 끌어들이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자들이 누구인가. 다름아닌 남조선괴뢰들이다.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과 침략전쟁책동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여 끊임없는 정세불안을 초래하는자들이 그 무슨 《신북방정책》이라는것을 광고하며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떠벌이고있는것이야말로 철면피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런 불순하고 모순적인 대결정책이 통할리 만무하다.

현 괴뢰당국이 들고나온 《신북방정책》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나날이 더욱 비약하는 우리의 승리적진전에 질겁한자들이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 잡는 격으로 고안해낸 한갖 궁여지책으로서 내외의 조소와 배격, 종국적파탄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괴뢰들의 책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우리 겨레는 민족공조를 외면하고 외세와의 반공화국압살공조에 열을 올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역무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허 영 민

리성을 잃은 트럼프패거리들의 핵전쟁망언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사상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가고있는 트럼프패거리들이 지금 리성을 잃고 핵전쟁망언을 늘어놓고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마스터는 2일 제간국방연단이라는데서 북조선과의 전쟁가능성이 매일 높아지고있다, 북조선의 핵무기개발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뇌까렸다.

이자는 우리 공화국을 《불량배정권》으로 몰아붙이면서 미국과 전세계가 직면한 가장 크고 긴박한 위협은 북조선정권의 《위협》과 장거리핵타격능력을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악담을 늘어놓았다.

미중앙정보국 국장 폼페오도 이 연단에서 우리의 최고지도부를 함부로 걸고들면서 핵전쟁나발을 불어댔다.

한편 미공화당소속 국회 상원의원 그레이엄은 북조선이 미본토타격능력을 완성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것이다, 중국이 이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자체로 해결할것이며 그것은 곧 전쟁, 북조선땅에서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폭언하였다.

이자는 얼마전 CBS방송과의 회견에서 북조선의 도발을 가정한다면 미군을 가족과 함께 남조선에 보내는것은 미친짓이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전쟁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제는 그것이 시간문제인듯이 핵전쟁광고에 열을 올리였다.

미국고위정객들의 망동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코 핵전쟁을 터뜨려 우리 민족을 괴멸시키기 위한 계획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날뛰는 트럼프패거리들의 미친 망발들은 미국언론들속에서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잡지 《더 아메리칸 콘써버티브》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마스터의 발언이 가장 무책임하고 위험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잡지는 미국이 북조선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를 벌리고있는중이라면 이미 수년전에 진것이나 다름없다, 최근에 있은 북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는 이 경기가 끝났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북조선비핵화를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환영에 매달리는것은 미국을 불필요하고 극도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쟁에로의 길에 놓이게 만드는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잡지는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공격이 림박한것이라면 그것은 십중팔구 미국에 대한 북조선의 선제타격을 초래할것이며 잠재적인 전쟁위험이 매일 증대되고있다면 그것은 미국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북조선을 공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있기때문이라고 폭로하였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을 조장하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우리를 《핵전쟁도발자》로 매도하고있는 미국이다.

예로부터 입은 재앙을 몰아오는 문이라고 하였다.

트럼프패거리들은 짧은 혀바닥을 마구 놀려대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재앙을 몰아올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고위정객들이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망발을 일삼고있는것과 관련하여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우리를 겨냥한 사상 최대의 련합공중훈련을 강행하고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고위정객들이 줄줄이 나서서 호전적인 망발들을 늘어놓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소속 국회 상원 의원이 《북조선과의 전쟁가능성》이 매일 증대되고있다느니, 《선제공격》선택에 더욱 접근하고있다느니, 남조선주둔 미군가족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느니 하는따위의 화약내풍기는 대결망발들을 늘어놓은것은 우리에게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에 대비하라는 신호로밖에 달리 해석될수 없다.

지어 미중앙정보국장이란 놈이 우리의 심장인 최고지도부까지 감히 걸고들며 도발을 걸어온것은 우리가 강경대응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를 빌미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미국의 간교한 흉심의 로출이다.

미국이 련속 벌려놓고있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속에 미국의 고위정객들의 입에서 련발아 터져나오는 전쟁폭언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은 기정사실화되고 이제 남은것은 언제 전쟁이 터지는가 하는 시점상문제이다.

트럼프측근들이 떠벌이는 전쟁망발들과 무모한 군사적움직임들은 현 미행정부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마음먹고 행동단계들을 차례차례 밟아나가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세계는 조선반도정세긴장의 장본인이 누구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교란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려보아야 할것이다.

미국은 매일과 같이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광고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응당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이 우리의 자제력을 오판하고 끝끝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핵무력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미국은 제가 지른 불에 타죽지 않으려거든 자중자숙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로 씨 야
미국과 남조선의 련합공중훈련을 도발행위로 규탄

로씨야국가회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은 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도발행위로 규탄하였다.

그는 련합공중훈련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재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였으며 큰 불길을 일으키는데는 한점의 불꽃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지도부는 이 지역에서의 군사훈련확대를 용납할수 없다는데 대해 루차 강조하였다고 언급하고 그는 상황을 안정시킨다는것은 해당 지역에 전쟁위협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북조선과의 경계선부근에서 진행되고있는 이번 훈련은 도발행위이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항상 자기가 제시한 항로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국가들을 자극하는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있다, 일극세계란 말이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행정부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자기를 《국제헌병》으로 여기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미국남조선련합공중훈련 중단하라!
남조선 각지에서 항의투쟁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은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지에서 항의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있다.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군산미군기지, 괴뢰공군 1전투비행단이 둥지를 틀고있는 광주공군기지앞에서 규탄집회와 시위투쟁을 단행하였다.

미국대사관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이번 련합공중훈련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여 《북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불순한 기도에 따라 강행된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련합공중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북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에 대한 해상봉쇄까지 운운하는 상태에서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리고 진행하는 련합공중훈련은 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조선반도에서 핵대결과 전쟁위기를 격화시키고있다고 그들은 성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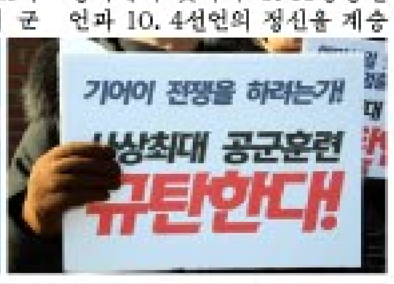
그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계속 강행하고있는 북침전쟁연습은 북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광주에 있는 괴뢰공군기지와 군산미군기지앞에서도 공중비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시위투쟁이 있었다.

이날 북침을 노린 련합공중훈련을 반대규탄하는 기자회견들이 진행되였다.

광주에 있는 괴뢰공군기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싸드》저지광주행동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감행되는 이번 련합공중훈련이 전쟁위험을 더욱 높이고 겨레의 생명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있다고 성토하였다.

단체는 전쟁을 막고 평화로 가는 길은 대화뿐이며 현 당국이 미국에 추종하는 외교,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산미공군기지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주권련대는 이번 훈련이 북의 주요거점을 비롯한 700여개의 목표들을 타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으로서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전쟁연습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속에 살고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이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단체는 그 길만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회견문을 통해 단체는 전쟁도발자는 미국이며 미국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다음 남조선에 엄청난 량의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폭로하였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남조선련합공중훈련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압박을 강화하면서 력대 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을 감행하는것은 우발적인 충돌위험을 더한층 높이는것이라고 까밝혔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대화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 《정부》가 북과의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면서 미국주도의 《대북제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싸드》반대, 전쟁반대 세계녀성평화행동도 같은 장소에서 련합공중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현 남조선집권자가 말로만 평화를 운운하고 조선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회견문은 제재와 군사적압박으로는 평화를 가져올수 없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략자산을 총전개하여 치르어지는 이번 《한》미공군합동군사훈련은 북을 자극하여 전쟁위기를 부추길뿐이다. 언제까지 군사훈련, 전쟁연습으로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겠는가.

우리 녀성들은 전쟁의 참화가 녀성과 아이들에게 어떤 악몽을 가져다주었는지 잘 알고있다. 미국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미공군합동훈련 당장 중단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미국은 더이상 《한》반도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경남진보련합도 5일 경상남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전쟁을 불러오는 북침련합공중훈련을 당장 중지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할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압박이 실전단계에서 감행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그것은 실패한 《전략적인내》정책의 반복일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군사훈련을 당장 중지하고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철회할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한편 경기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가 이날 평택미군기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련합공중훈련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단체는 미국이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쟁연습을 막고 이 땅에 평화가 올 때까지 견결히 싸울것이라고 단체는 선언하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을 부르는 북침핵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전쟁위기 항구적근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를 하루빨리 끝장내자!》는 구호들이 연방 터져나왔다.

【조선중앙통신】

=《보안법》철폐하고 정보원 해체하라=

남조선의 민중민주당 집회 진행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민중민주당이 1일 서울의 광화문주변에서 《보안법》철폐와 정보원해체, 리명박구속, 량심수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보안법》이 당국을 반대하는 세력과 사상을 탄압하고 남북분렬을 가져왔을뿐아니라 미군강점을 간접적으로 합법화하고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비난하였다.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통일애국인사도 종교인도 민주인사도 다 죄인이 되고 누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수밖에 없으며 민중의 생존권과 새세상도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이 악법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량심수들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면서 현 《정부》가 제도개혁을 실현하지 못하면 초불민심의 규탄을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는 민중민주당 대변인실의 성명이 랑독되였다.

성명은 12월 1일은 남조선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토대로 만든 희대의 파쑈악법 《보안법》이 만들어진 치욕의 날이라고 개탄하였다.

《보안법》은 지구상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최대의 악법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불허하고 민중의 인권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교살해왔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파시즘의 망령이 여전히 남녘땅을 횡행하는것도 다름아닌 《보안법》이 독기를 내뿜고있기때문이라고 규탄하였다.

정보원이 파쑈폭압의 상징으로서 철저히 해체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정보원때문에 고문받고 《간첩》으로 몰려 목숨잃은 애국인사, 민주투사가 얼마나 되는가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보다 더 악질적으로 남조선의 민주주의와 진보운동을 탄압해온 정보원은 완전히 없어져야 하며 그와 한짝이 되여 놀아난 경찰의 보안수사대와 공안검찰, 기무사령부도 동시에 해체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명박구속과 모든 량심수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정부》가 민중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초불민심이 나설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과 리명박의 림박한 파멸에서 심각한 력사의 교훈을 찾으라고 요구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보안법철폐! 정보원해체!》, 《리명박구속! 량심수석방!》, 《리명박 구속하라!》, 《적페청산! 전쟁반대!》, 《북침전쟁연습 중단》, 《싸드 가지고 미군 떠나라》고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정부》종합청사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글 게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플러스》가 1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탄압처형하는 파쑈악법 《보안법》을 폐지할것을 요구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보안법》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사람들이 자기의 말과 행동, 생각이 《보안법》에 걸리지 않는가를 살피면서 자신을 주의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학계와 언론계에서 영향력있는 사람일수록 더 우심해지고있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보안법》이라는 족쇄는 북에 대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북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평가와 비난만을 하게 한다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북에 대해 비판적인 말만 해야 지성인대접을 받게 되여있다고 비난하고 글은 《보안법》은 남조선을 《비지성적》상태로 만들어놓았다고 성토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에 끼치고있는 가장 큰 해악중의 하나이라고 까밝혔다.

글은 현 《정권》하에서도 《보안법》은 아무 탈없이 존재하고있을뿐아니라 모든 법을 침해하면서 군림하고있는데 원인은 그의 폐지를 주장하는것이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것으로 되여 《보안법》에 걸리기때문이라고 폭로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판사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구호뒤에 숨어서 도저히 법률이라고 말할수도 없는 《보안법》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고 글은 단죄하였다.

글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여론공작과 특수활동비를 탕진하며 온갖 악행만을 저질러온 정보원이 존재할수 있었던것도 이런 악법이 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보안법》에 대한 해결책은 폐지하는것뿐이라고 글은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망조를 보여주는 무지스러운 당파싸움

최근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의 당파싸움이 보다 치렬한 양상을 띠고 벌어지고있다.

로씨야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끈질긴 비난과 압력을 받아오던 공화당이 반격에 나선것이다.

얼마전 공화당의 통제하에 있는 미국회 하원 사법위원회와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는 민주당소속 힐러리의 개인전자우편사용과 관련한 련방수사국의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미해명문제들이 제기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공화당원들인 두 위원회 위원장들은 공동성명에서 련방수사국이 나서서 힐러리를 기소하지 말것을 주장한 《숨은 리유》 등을 파헤쳐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화제의 초점으로 된 힐러리의 개인전자우편사용문제란 그가 국무장관시절에 정부봉사기를 리용하지 않고 개인전자우편을 리용하여 비밀에 속하는 정보들을 주고받은것을 말한다. 후에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내에서는 커다란 물의가 일어났으며 이로부터 련방수사국이 해당 사건을 맡아 조사하게 되였다.

지난해 7월 련방수사국은 힐러리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것이 판명되였다고 하면서 힐러리를 기소하지 말것을 사법성에 권고하였다. 련방수사국은 그후 대통령선거투표일이 박두한 시점에서 확인하지 못한 힐러리의 전자우편이 추가로 발견되였다고 하면서 재수사를 단행하였다. 끝내는 앞에서 내렸던것과 같이 결론하는것으로써 수사를 완전종결하였다.

힐러리에 대한 미련방수사국의 사건수사전말은 대체로 이러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에 대해 다같이 불만을 품었다. 수사초기부터 저들의 후보인 힐러리를 조사한다고 언짢아하던 민주당은 대통령선거전의 결정적인 시각에까지 재수사놀음을 벌려놓아 종당에는 저들을 패하게 만든 련방수사국을 증오의 감정으로 대하게 되였다. 공화당도 처음에는 자기들의 정치적적수인 힐러리에 대한 수사를 흡족하게 여겼지만 그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하자 노발대발하며 련방수사국을 비난해나섰다.

문제는 지금에 와서 공화당세력이 국회에서의 저들의 우세를 리용하여 계속 시끄럽게 놀아대는 민주당에 공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을 리용하려 하고있는것이다.

공화당이 주도하고있는 합동조사가 본격화될수록 많은 비화들이 드러날것은 불보듯 뻔하다. 실례로 힐러리측이 국회 상원 의원선거에 립후보한 미련방수사국 부장관의 안해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기부한 사실, 힐러리의 남편인 전 대통령 클린톤이 당시 사법장관이였던 린취를 조용히 만났던 사실 등 막후교섭을 하였다고 공화당이 걸고들수 있는 진펄지는 얼마든지 있다. 금전정치가 판을 치고있는 썩어빠진 미국정계에서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는 정객이란 한명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공화당세력은 지금 오바마행정부시기에 어떻게 되여 로씨야로부터 우라니움을 수입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될수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도 심화시키고있다. 그들은 로씨야가 미국에네르기산업에서 저들의 확고한 지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거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흑심은 뢰물공작을 벌렸을것이라고 추측하고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로씨야와 결탁하였다고 트럼프와 공화당을 비난하던 민주당세력이 도리여 《친로씨야분자》들로 몰리울판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로씨야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의혹과 관련하여 진행되고있는 조사로부터 주의를 딴데로 돌리려는 공화당의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한편 주요언론들을 내세워 트럼프와 그 행정부의 각종 추문들을 거의 매일과 같이 폭로하고 트럼프탄핵광고들을 내돌리는 등 공화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에 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보복의 악순환속에 휘말려들어 미국정계가 허우적거리고있다.

원래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에 의한 량당정치구도가 확립된 초기부터 두 당은 늘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댔으며 그것은 이 나라에서 일상적인 일로 되였다. 그러나 오늘처럼 서로가 적대시하며 물고뜯는 개싸움질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는것은 찾아보기 드물다. 그렇지 않아도 말기에 이른 미국에서의 정치적 및 사회적분렬은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미치광이 트럼프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후 인종적갈등과 모순이 극도로 격화되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로망한 이 늙다리가 핵전쟁소동에 발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본토에서 력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불안과 공포가 증대되고있다. 빠리협정과 유네스코에서의 탈퇴선언 등으로 하여 미국은 국제적으로도 몰리우고있다.

그야말로 국사를 개판으로 만들어놓고서도 권력쟁탈과 지배권유지에 환장이 되여 치렬한 당파싸움만 벌리는 정객들의 무지스러운 추태를 놓고 세상사람들은 미국의 멸망이 더욱더 다그쳐지고있다고 조소하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ㄱ-71193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